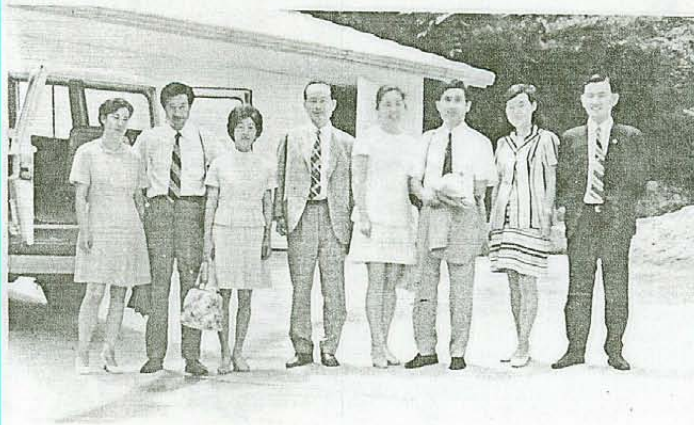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6/4	윤정양	27	남	부부	6/19	김조진	18	여	수원	7/3	조영진	32	남	영등포
" 5	정경수	17	여	부부	6/21	조영진	22	여	수원	"	최재민	32	남	영등포
" "	정경수	24	남	부부	"	박홍기	22	여	수원	7/10	최재민	25	남	영등포
" "	정경수	28	남	부부	6/24	홍기환	19	남	수원	"	최재민	30	남	영등포
" "	정경수	32	여	부부	"	정홍기	23	여	수원	7/16	최재민	18	남	영등포
" "	정경수	19	남	부부	"	정홍기	29	여	수원	"	최재민	17	남	영등포
" "	정경수	18	남	부부	"	정홍기	19	여	수원	"	최재민	18	남	영등포
" "	정경수	20	남	부부	"	정홍기	31	여	수원	"	최재민	16	남	영등포
" "	정경수	15	남	부부	"	정홍기	-	여	수원	"	최재민	17	남	영등포
" "	정경수	15	여	부부	6/25	정홍기	19	여	수원	"	최재민	45	남	영등포
" "	정경수	44	여	부부	"	정홍기	21	남	수원	7/17	최재민	16	남	영등포
" "	정경수	25	여	부부	"	정홍기	24	남	수원	"	최재민	24	남	영등포
" "	정경수	27	남	부부	"	정홍기	16	남	수원	"	최재민	24	남	영등포
" "	정경수	18	여	부부	6/26	정홍기	22	남	수원	"	최재민	35	남	영등포
" "	정경수	24	남	부부	6/28	정홍기	19	남	수원	"	최재민	35	남	영등포
" "	정경수	20	남	부부	"	정홍기	16	남	수원	"	최재민	8	남	영등포
" "	정경수	13	남	부부	"	정홍기	19	남	수원	"	최재민	34	남	영등포
6/19	정경수	15	남	부부	"	정홍기	18	남	수원	"	최재민	18	남	영등포
" "	정경수	14	남	부부	7/2	정홍기	13	남	수원	7/24	최재민	20	남	영등포
" "	정경수	40	남	부부	"	정홍기	17	남	수원	"	최재민	22	남	영등포
" "	정경수	23	남	부부	"	정홍기	12	남	수원	"	최재민	17	남	영등포
" "	정경수	25	남	부부	"	정홍기	17	남	수원	"	최재민	39	남	영등포
" "	정경수	20	남	부부	"	정홍기	16	남	수원	"	최재민	30	남	영등포
" "	정경수	13	남	부부	7/3	정홍기	17	남	수원	"	최재민	38	남	영등포
" "	정경수	22	남	부부	"	정홍기	16	남	수원	"	최재민	12	남	영등포
" "	정경수	-	남	부부	"	정홍기	17	남	수원	"	최재민	15	남	영등포
" "	정경수	20	남	부부	"	정홍기	24	남	수원	"	최재민	9	남	영등포
" "	정경수	23	남	부부	"	정홍기	20	남	수원	"	최재민	36	남	영등포
" "	정경수	30	남	부부	"	정홍기	35	남	수원	7/25	최재민	9	남	영등포
" "	정경수	45	남	부부	"	정홍기	22	남	수원	"	최재민	14	남	영등포
" "	정경수	16	남	부부	"	정홍기	16	남	수원	7/31	최재민	27	남	영등포
" "	정경수	54	남	부부	"	정홍기	12	남	수원	"	최재민	18	남	영등포
" "	정경수	37	남	부부	"	정홍기	9	남	수원	"	최재민	22	남	영등포
" "	정경수	14	남	부부	"	정홍기	20	남	수원	"	최재민	22	남	영등포
" "	정경수	12	남	부부	"	정홍기	23	남	수원	"	최재민	-	남	영등포
" "	정경수	9	남	부부	"	정홍기	15	남	수원	"	최재민	46	남	영등포
" "	정경수	29	남	부부	"	정홍기	21	남	수원	"	최재민	23	남	영등포
" "	정경수	59	남	부부	"	정홍기	24	남	수원	"	최재민	16	남	영등포



두번째의 신전방문

한국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두번째 신전 방문에 참가하게 된 8명(4쌍의 부부)이 지난 7월 27일 하와이로 출발하여 8월 10일경 무사히 귀국하였다. 일본 성도 171명과 함께 전세기로 출발한 이들은 하와이 신전에서 의식을 받고 귀로에는 일본 성도들과 교회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하와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성도 이성현, 장병훈, 황충열, 이태문형제와 귀환 선교사 부렛사, 라스탐스, 스카운 장로들과 전임 슬로버 선교부장 가족의 안부를 갖고 온 이들은 이번 신전 방문은 일생에서 가장 감격의 벅찬 순간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신전을 방문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상호(청운지부장), 민동근(동중앙평의원), 윤화중(대전지부장), 홍범식(전주지부).



청소년 대회

청소년들에게 공동생활을 통하여 협조와 지도 능력을 배양 하고 사고적인 경험을 갖게 하며 복음에 대한 간증을 길러주기 위한 청소년 대회가 각 지방부별로 7월 27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있었다. 3회 대회까지 선교부에서 주관하던 것을 올해부터 각 지방부 별로 갖게 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준비나 진행에 참여하도록 했던 올해의 대회는 남부와 서중앙 지방부가 부산에서 두 시간 거리인 동해안의 월래와 서울 근교 일영의 삼상 국민학교에서 27일과 28일에, 동중앙 지방부는 8월 16일부터 인천 청학골에서 80명에서 120명의 규모로 있었다. 3박 4일로 각 지방부 상향회 역원들이 계획과 활동에 참여하여 한달여를 현지 답사와 준비 기간으로 보낸 올해의 청소년 대회는 어느 때 보다도 활동과 진행면에서 짜임새 있는 것이었다. 수영장이나 바다의 인근으로 자리를 잡은 올해의 활동은 "젊음과 형제애"란 단어로 집약할 수 있으리라. 호남 지방부는 올해의 청소년 대회를 쉬었다.

